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최경식 남원시장, 주요 중앙부처 방문해 현안사업 반영 요청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최 시장의 이번 방문은 지역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사업별 현장 상황과 필요성을 상세히 전달하고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남원 도자 전시관 건립(170억원) △남원 현대문학박물관 건립(152억원) 등 우리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는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국토부, 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국토부, 43억원) △그린바이오소재 원료공급센터 건립(농식품부, 98억원)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경찰청, 442억원) △바이오가스 활용 미꾸리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환경부, 15억원) 등 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기반 마련을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식 시장은 “해당 사업들은 남원의 지역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들”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서도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각 부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

책 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 모든 직원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민 임실군수, 정부세종청사 방문해 현안사업 반영 요청

심 민 임실군수가 핵심사업인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사업과 KTX 임실역 정착 등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심 군수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임실군이 중점 추진 중인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사업’과 KTX 임실역 정착’라는 두 핵심 과제를 안고 이뤄졌다.

심 군수는 먼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6년도 예산안에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사업비 67억1천만원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심 민 군수는 “세계명경테마랜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활성화를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기재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은 심 군수는 임실역에 KTX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철도망 체계 개편에 군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은 전북 내륙권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정착역 확보 시 순창·정수·진안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교통권 형성이 가능하다”며 “KTX 임실역 정착은 지역민의 교통 복지 실현은 물론, 주요 국가시설인 35사단, 호국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 도모와 천만 관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임실 방문객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파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

했다.

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보안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국회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와 국토부가 요청한 용역과정에 임실군 임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정치권 협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하림, 상호협력 업무협약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상호협력 기반 구축

남원시는 24일, (주)하림과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의 구체화와 실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림은 남원시의 투자선도지구 조성 방황에 공감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력 △푸드서비스(FS) 및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남원 스마트팜 및 지역 농산물의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남원시와 상호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상주 인력과 관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 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역 식자재 활용 확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 가능성이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경천·양지천 수변 개발사업’ 생태 복원 성과

순창군 대표 하천인 경천에 최근 다슬기 서식이 확인되면서,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천·양지천 수변 개발사업’이 생태 복원의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다슬기는 수질이 맑고 오염이 적은 군은 하천 준설, 지장물 제거, 하천변 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천의 수질과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이번 변화는 하천 종합 개발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이 개선된 사례로, 단순한 정비를 넘어 군민 삶의 질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군은 하천 준설, 지장물 제거, 하천변 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 같은 노력이 수질 개선과 생물 다양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달빛어린이병원’ 개소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

남원시는 야간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필수 연계인 신생아 응급진료를 위해 소아 야간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남원의료원에 개소하고 6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시기에 맞춰 달빛어린이병원 전문의 추가 확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야간

진료를 제공하는 전일 운영을 추진한 여지역 주민들에게 공적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한 남원시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심야시간 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 지난 6월 2일 남원백제약국이 새롭게 지정되어 연중무휴 밤 8시~11시까지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2억원 달성

남원시가 6월 24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 기부건수 1,460건, 모금액 2억원을 달성하며 3년 누적 모금액 13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홍보를 통한 기부자 발굴,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이벤트

등으로 기부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정성이 가득 담긴 남원시 답례품(지리산 흑돼지, 한우, 파프리카 등)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47명이 남원시를 다시 찾아 재기부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웨어 대회 개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 중인 순창군이 국제 소프트웨어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 구장에서 ‘2025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웨어 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소프트웨어협회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웨어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일본 등 총 9개국에서 250여 명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방식인 ‘오픈’ 형식으로 진행돼 국내에서는 국가대표팀, 실업팀, 대학팀, 고등학교팀까지 다양한 소속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임실경찰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임실군이 지난 23일 임실경찰서와 함께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1회 체납된 경우는 납부 독려 예고문을 교부했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 미행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타 지자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임실군과 임실경찰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대의 체납 차량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체납 300만원(5대), 세외수입 체납 200만원(4대) 등 총 500만원(9대)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7명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직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눈에 담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